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뉴스N제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	1
뉴스N제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	2
뉴스N제주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	3
江原日報	11면	횡성군 역량강화사업 성과 공유회	4
江原日報	01면	"한반도 평화에 강원특별자치도 역할 중요"	5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소통의 리더십 발휘 남북교류 새 물꼬 트길"	6
江原日報	07면	"하나로 뭉쳐 강원경제 도약 원년 만들자"	7
강원도민일보	07면	"2024강원대회 성공 도 경제 활성화 견인 이룬다"	8
웹이코노미	온라인	2023 태백시새마을회 평가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화합의 밤...	9
江原日報	21면	[동정] 홍성기(홍천) 도의원	1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홍성기 도의원	10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0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08면	[동정] 이승진(비례) 도의원	10
江原日報	01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국력 결집"	11
江原日報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국력 결집"	11
江原日報	10면	춘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광성 견학 논란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춘천·홍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범도민 지원 나선다	12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예산 1139억원 편성	13
강원도민일보	10면	강릉 의료폐기물 소각장 재추진 주민 우려	13
江原日報	04면	1주일 새 23.5도 급강하 '널뛰기 날씨'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양양공항 전세기 재개 활로 계기로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소양강댐 주민 희생 당연히 안 된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글로벌혁신특구 道 지정, K-바이오 추동력이다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계속되는 북한 도발, 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야	18

2023년 12월 19일 (화)

뉴스N제주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현달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12월 18일(월)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김경학 의장과 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운영위원장 등은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과 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환담하는 자리를 가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뉴스N제주

2023년 12월 19일 (화)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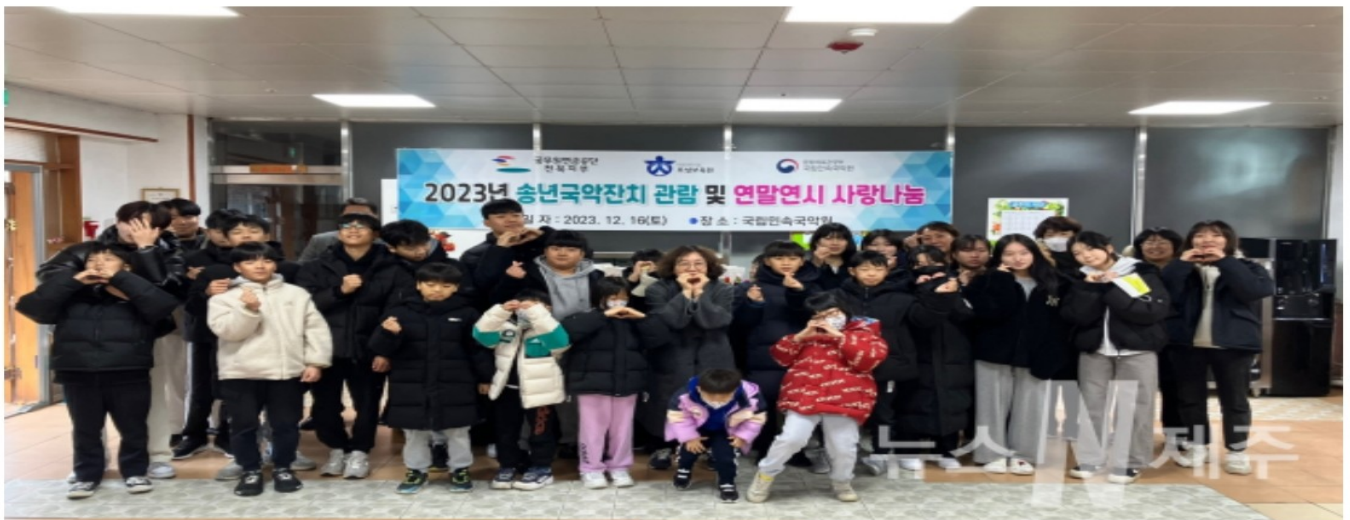
뉴스N제주

2023년 12월 19일 (화)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의장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지역 11면



횡성군 역량강화사업 성과 공유회 횡성군 역량강화사업 성과 공유회가 18일 횡성 향교웨딩홀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이경중 송호대 총장 등 기관·단체장과 교육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종합 01면

“한반도 평화에 강원특별자치도 역할 중요”

제19회 DMZ 평화상 시상식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수상
국제평화심포지엄 함께 열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한 주역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19회 DMZ 평화상을 수상했다.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사, 강원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3 DMZ 평화상 시상식에서 임 명예교수는 학술상을 수상했다. ▶관련기사 2면

임 교수는 한국정치사회학회 창립 회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미국 듀크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특히 78종의 저작을 단독 및 공동 출간하는 등 국내 사회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올해 대상과 교류협력상은 수상자

를 배출하지 못했다.

임 교수는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두면 언젠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DMZ 평화상은 고(故) 정주영(2008년 수상)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전통과 권위의 상”이라며 “자유가 없는 혁신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임 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교류의 물꼬가 트이면 우리부터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우선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DMZ 평화상 수상자들은 묵묵히 교류 협력을 진행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언을 아끼지도 않았다”면서 “이

같은 노력과 특별자치도의 힘이 더해진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움도 언젠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제평화심포지엄이 열려 정대진 한라대 교수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송영훈 강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동기 강원대 평화학과 교수, 전영선 건국대 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병수 강원일보 전 무이사 등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허영 국회의원(춘천 갑), 육동한 춘천시장, 하석균 도의회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 이현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최찬희 강원미래여성포럼 회장, 이덕하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사, 강원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3DMZ평화상 시상식’이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DMZ 평화상을 수상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허영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별아 강원문화재단이사장, 최윤 강원민주재단이사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자치도, 소통의 리더십 발휘 남북교류 새 물꼬 트길”

DMZ평화상 수상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남북 사이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특히 국제사회의 조류에 역행하는 3대 세습 봉건왕조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적지 않다”며 “짧은 세대는 남북이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단이 지속될수록 분단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통일비용이 커진다. 그러나 통일비용도 이른바 ‘전

환의 계곡’을 넘어 가면 점차 줄어들고 통일편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지면 한국은 강중국(強中國)으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참여하게 부딪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풀려야 한다”고 전제한 후 “지금 한국의 국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외교가 내치의 연장이듯이 한국 정치가 극한적인 진영대립을 넘어 여야 협치를

통해 국론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역할, DMZ평화상 수상에 대한 감회도 전했다. 임 교수는 “DMZ평화상은 강원도가 제정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정주영 회장으로 부터 시작해 이기헌 주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단한 분들이 역대 수상자라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길을 다시 열기 위한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경제 07면

“하나로 뭉쳐 강원경제 도약 원년 만들자”

2023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유공자 21명 표창·화합의 장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협약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대형 악재에도 강원경제계가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하나로 뭉칠 것을 다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이금선)는 1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년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 최종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정재웅 강원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광구 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경제 유관기관·단체·협회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지역경제



◇2023 강원경제인 한마음 대회가 1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지사,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허영 국회의원, 최종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원자치도와 경제단체연합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신세희기자

발전과 경제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에 이어 이번 행사가 내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경제가 내년에도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더 높은 꿈을 향한 도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강원경제인 간 결속과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모두

21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전달됐다.

또 강원자치도와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유공자 표창 수상자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경제 07면

“2024강원대회 성공 도 경제 활성화 견인 이룬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 한마음대회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금선)는 1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대회에는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허영 국회의원, 최종구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박정규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욱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장영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등 도내 경제 유관기관·단체·협회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 경제발전 유공자 표창 시상에



2023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가 1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렸다.

김정호

는 총 21명이 수상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또 '새로운 출발! 미래글로벌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퍼포먼스'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금선 회장은 “강원 경제 현안을 파

악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 도내 향토기업, 협회·단체들이 강원특별자치시대 경제발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지자체의 지원·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내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해 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선우

웹이코노미

2023년 12월 19일 (화)

전국

2023 태백시새마을회 평가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화합의 밤 개최

서예지 기자 korea@newsbest.kr



(웹이코노미) '2023 태백시새마을회 평가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화합의 밤'이 지난 16일 오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이철규 국회의원,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이한영·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관기관단체장, 새마을회 임·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인물동정 21면

◇홍성기(홍천)도 의원은 19



일 오전 11시 홍
천 K컨벤션 웨
딩홀에서 열리
는 월남전참전
자회 회원·가족

위로연 및 송년회에 참석.

2023년 12월 18일 (월)

종합

江原日報

[동정] 홍성기 도의원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9일 오전 11시 홍천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리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가족 위로연 및 송년회에 참석.

2023년 12월 18일 (월)

종합

江原日報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9일 오후 6시 속초 아남프라자 연회장에서 열리는 청호동 사회단
체 송년의 밤에 참석.

홍성기(홍천) 도의원은 19일 오전 11시 홍천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리는 월남전참전자회
회원·가족 위로연 및 송년회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19일 오전 11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3층 2강의실에서 열리는 춘
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인물동정 17면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19일
오후 6시
속초아남

프라자 연회장에서 열
리는 청호동 사회단체
송년의 밤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인물동정 08면



이승진(비
례) 도의
원은 19일
오전 11시
춘천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열
리는 센터운영위원회
에 참석한다.

2023년 12월 19일 (화)

江原日報

종합 01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국력 결집”



강원 2024 한달 앞으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강원 2024) 성공 개최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등이 18일 준비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관련기사 2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협의회’를 갖고 국민의힘, 조직위, 개최도시 자치단체장 등과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건·홍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최근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감염병, 폭설, 한파 등이 위험 요소로 거론됐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회 개막까지 30여일이 남은 만큼 급격한 날씨 변화 등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비하고 꼼꼼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강릉)·이철규(동해·대백·삼척·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 개최도시 지역구 의원들은 “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

당정·조직위·개최지 지자체장

준비상황 공동 점검서 한목소리

폭설·한파 등 모든 상황에 대비

안전 관리 만전·대대적 홍보도

유인촌 장관 “대통령도 큰 관심”

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역량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에서 재현되길 기대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굉장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 번 당부 말씀을 하셨다”며 “성공적인 청소년올림픽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공 개최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교통 문제·제설 대책·한파 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며 “관중 2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 인터넷 예매율이 53.4%다. 대회를 앞두고 (목표를)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이무현기자

2면에 계속

2023년 12월 19일 (화)

江原日報

종합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국력 결집” -1면에서 계속

최종구 조직위 대표 위원장은 “준비에 차질은 없지만 점검에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 결과 정부는 선수촌·경기장 등 13개소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하고, 응급이송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감염병 현장대응팀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 유튜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강원자치도와 함께 127억원(국비 97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원해 대회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4개 시·군에서 50여종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릉 올림픽파크 공연 등도 후원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지역 10면

춘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관광성 견학 논란

【춘천】춘천시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진지 견학을 명목으로 전남 여수시를 다녀오면서 상당수 일정을 관광지로 채우고 특산품을 선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 방문에 쓰인 비용 전액은 소각시설 인근 100여가구를 위해 쓰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으로 충당됐다. 소각시설 주변 마을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은 지난 8-9일 1박2일 일정으로 여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증

선진지 방문 명목 크루즈·유람선 등 일정 기금 사용 눈총 위원장 “당초보다 차액 생겨 세금 아닌 수익금서 사용” 시 “세부 사업 관여 어려워... 부적절 활용 감사 검토”

축을 앞둔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들은 첫째 날 1시간가량을 처리시설에 머문 뒤 관광 일정으로 소화했다. 이들이 방문한 관광지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크루즈 볼보투어, 오동도 유람선 등이다. 숙박은 4성급 호텔에서 1인1

실로 이뤄졌고 참석자들에게는 갈치, 잣 등의 특산품이 선물로 주어졌다. 다시 춘천에도 착한 후에는 한우 전문점에서 뒤풀이 식사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낮은 견적을 낸 여행사를 통해 견학이 이뤄지면 당초 계획보다 차액이 생겨 위원들의 동의 아래 특산품 구

매가 이뤄졌고 마을 경로당에도 물품을 지원했다”며 “1년간 위원들이 고생했고 비록 공금이지만 세금이 아닌 우리의 수익금을 쓴 것으로 다른 주민 관광 시에도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1인1실 숙박과 관련해서는 “위원 간 사이가 좋지 않아 2인씩 조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지원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기금 활용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 춘천시에 보고한다. 이번 여수 방문 역시 올해 계획된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을 통해 지출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산 보고를 받고 있지만 지정된 용도 외 지출을 걸러낼 뿐 세부적인 사업 진행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지원기금 부적절 활용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종합 02면

춘천·홍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범도민 지원 나선다

도, 범도민 협의체 21일 발족 바이오 예방분야 경쟁력 확보 국가 항체 클러스터 연계 전략

춘천시와 홍천군이 내년 상반기 지정 예정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공동 유치에 나선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 범도민 지원 협의체를 발족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주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당 특화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중심으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1일 ‘범도민 지원 협의체’를 발족해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위한 민·

관·산·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세제 혜택과 신속 인허가, 길러규제 완화, 도로와 용수·전기 시설 등 인프라 조성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구미시, 용인·평택시)와 이차전지(청주시·포항시·새만금·울산시), 디스플레이(천안시·아산시) 분야 특화단지 7곳을 지정했다. 바이오 산업이 올해 5월 기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 중이다. 도내에선 춘천시와 홍천군이 공동으로 ‘융합첨단바이오 의약산업’ 특화단

지를 유치한다. 춘천시가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예방·진단 분야와 홍천군의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접목한 전략이다. 특화단지 지정 후보지는 춘천시 후평산단과 남춘천산단, 동춘천산단, 거두농공단지, 기업혁신파크(예정지)와 홍천군 북방농공단지, 국가항체 클러스터 일대이다. 이번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는 경기도와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등 10여 곳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시 도내 파급 효과는 상당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바이오와 반도체, 수소 산업을 첨단산업으로 꼽고 중점 육성하고 있다. 춘천시와 홍천군은 내년 상반기 전국 시도·도에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서 각각 AI정밀 의료융합 디지털 바이오, 천연물바이오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종합 02면

도,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예산 1139억원 편성

과오납금 정산 법정다툼

속보=강원도가 내년도 폐광지역개발 기금(폐광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광기금 소송(본지 12월 15일자 1면) 대비예산으로 113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내년 도폐광기금 운용계획을 최근 수립하면서 폐광기금 과오납금 정산 명목으로 1139억원을 편성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와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250억원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20년 강원도에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중 1071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내년 편성된 과오납금 예산은 소송 비용과 승·패소에 따른 폐광기금 기납부액(1071억원)을 강원랜드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다.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반납해야 할 폐광기금 기납부분은

1071억원(2017~2019년)에서 708억원(2017~2018년분)으로 줄었다. 강원도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과오납금 예산은 소송에 대비해 2019년부터 폐광기금에서 유보해놓은 금액”이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광기금 기납부액을 강원랜드에 반납하거나 나머지 과소납부분을 받아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자와 변호사 수임료, 인지료 등 소송에 따른 비용은 1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지역 10면

강릉 의료폐기물 소각장 재추진 주민 우려

임곡리 소각시설 설치 관련
시-민간업체 소송 업체 승소
시 “추진 최종 결정 아니다”

속보=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이 추진(본지 2021년 2월 10일 13면 등)과 관련 민간업체와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법원이 민간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위기에 놓이자 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우려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S업체와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두고 행정소송을 한 결과 올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수용하라는 판결을 받아 지난 10월 입안 수용결정을 내렸다.

앞서 S업체는 임곡리 1리 6250㎡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진행 적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문화관광도시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심의 입안 불가 통보를 받아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해당업체는 지난 2021년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입안 수용결정을 받았다.

이같은 소식이 들리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을 반대하던 지역주민들이 해당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강동면 주민들은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고작 300여

m 떨어진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들어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월 직접 원주환경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시를 통해 임곡리 주변 상황과 주민반대의견을 원주환경청에 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수용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관계기관 실·과협의,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았고 사업이 추진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연재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사회 04면

1주일 새 23.5도 급강하 ‘널뛰기 날씨’

속보=18일 대관령의 체감온도가 영하 22.7도까지 떨어지는 등 동강군이 맹위(본보 18일자 1면 보도)를 떨치고 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낮 최고기온이 2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봄날 같은 날씨가 이어졌으나 갑작스럽게 시베리아 급 한파가 몰아치며 출근길 시민들은 종종걸음을 쳐야 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온은 철원이 영하 16도로 가장 낮았고, 북춘천 영하 13.9도, 춘천 영하 13.3도까지 떨어졌다.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철원은 23.5도, 춘천은 22.5도의 차이를 보였다. 11일 철원은 오후 한

대관령 체감온도 영하 22.7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영향
오늘도 시베리아발 한파 예상

때 기온이 영상 4.3도, 춘천은 7.4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18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나선 춘천의 직장인 박모(30)씨는 “봄날씨처럼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 적응이 안 된다”며 “부산을 떨며 룡패딩을 다시 꺼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55)씨도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날씨 탓인지 주변에 감기 환

자도 더 많아진 것 같다”며 “도로도 미끄러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겨울 들어 이처럼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기후위기와 이로 인한 엘니뇨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11월 대관령과 강릉을 비롯해 8개 시·군 관측지점에서 11월 최고 일평균기온을 넘어섰다. 12월에도 해수면 온도 상승과 이로 인한 엘니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상고온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7일부터 시베리아 발 고기압이 한반도에서 확장하고, 지구 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오르는

북극의 찬 공기를 가로막던 힘이 약해지면서 한반도까지 찬 공기가 유입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에도 시베리아발 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지며 강원지역 전역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이 영하 14도로 가장 낮겠고, 춘천 영하 11도, 강릉 영하 3도 등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며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보온 상태를 점검하고 동파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양양공항 전세기 재개 활로 계기로

-7개월만 국제선 입국, 막대한 시설 무용지물 안되게

연말연시를 맞아 모처럼 양양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했습니다. 12월 18일부터 1월 3일까지 4회에 걸쳐 마닐라-양양간 전세 여객기가 운항하는 국제선 재개는 플라이강원 운항 중단 후 7개월 만입니다. 필리핀 관광객 680여명은 평창 스키체험을 시작으로 춘천 남이섬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강릉 BTS 버스정류장 등을 매회 2박3일 일정으로 즐기게 됩니다. 이번 국제선 재개가 겨울철 강원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자 양양공항 활로를 다시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양양공항은 강원 영동권 허브공항 필요성에 따라 1995년 신공항 후보지로 확정돼 2002년 4월 개항하면서 동해안 최북단 국제공항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용객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대 적자 공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바다 자원과 눈·얼음 겨울관광 경쟁력에서 차별성과 우위를 갖는 강원관광 특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탑승객이 부족한 결과 정기노선이 잇따라 폐쇄되고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도 달하지 못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현지 양양군은 물론 범도민 운동까지 전개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악평도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원한 항공사 '플라이강원'마저 좌초되면서 회생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올 6월 16일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서울회생법원은 2차 공개 매각을 실시 중이나 어제 또 한번 예비인수자 결정이 연기돼 낙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왕 조성된 막대한 규모의 양양공항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양공항은 20여년 전 공사비만 해도 3567억원이 투입됐으며 연간 항공기 이착륙 처리 능력이 220~292석 규모 중형항공기 연 4만 3000회 뜨고 내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객터미널은 연간 193만 명의 수용 능력을 보유하는 등 호조건의 시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이동 시간을 줄이는 항공편 이동에 대한 매력도 및 해외여행 재개로 다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기존 운영방식 외에 관광지 특성을 살린 민간인 경비행기 및 화물기 운항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아울러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소양강댐 주민 희생 당연시 안 된다

-정부대책 촉구 한목소리, 본격 정책 논의 기대

소양강댐 준공 50년을 맞아 주민들의 피해와 그에 따른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음에도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수몰의 아픔과 장기간의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개인과 지역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과 주민들의 고통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실태와 피해 규모를 하루빨리 파악해 지원과 개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양강댐은 연 12억t 규모의 생활·공업용수와 1300만t의 농업용수를 수도권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댐 하류 산업발전과 농산업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인근 주민과 지역은 오랫동안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지난 1973년 10월 15일 준공한 소양강댐은, 건설 과정에서 춘천·인제·양구 지역에 50.2㎢의 수몰지가 발생시켰습니다. 수몰민만 3153가구, 1만8546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제와 양구는 길이 끊겨 육지 속 고도가 됐고, 춘천을 비롯한 댐 소재·주변 지역은 상

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원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지난 50년 동안 6조8300억~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보상 요구는 최근 열린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에서 표출됐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양강댐으로 이른 '한강의 기적' 뒤에는 수몰민 2만여 명의 아픔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갈 곳이 없고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며,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하고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이제는 희생 편의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소양강댐 주민 지원 문제가 공론화한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한화진 환경부장관도 수몰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소양강댐 준공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댐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할 의사를 표시해 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글로벌혁신특구 道 지정, K-바이오 추동력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의 마지막 관문까지 진출했다. 강원은 대전, 충북, 부산, 대구, 경북, 울산, 전남 등과 함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마침 글로벌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연내 결정될 에너지, 모빌리티, AI·데이터, 바이오 등 4곳의 특구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전국적인 수요와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4곳으로 확대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경쟁률이 2대1이다. 후보지역 8곳의 유치 의지가 더 뜨거울 수밖에 없다. 강원은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온 만큼 지역의 역량을 모아 치열한 최종 경쟁을 뚫고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강원은 춘천과 원주 등을 중심으로 한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성과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 시장을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특구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860억원을 투자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바이오·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강원바이오산업은 이미 큰 성과를 올리며 국내 최고의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은 국내 디지털헬스와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산업이 그동안의 성과를 더 발전시키는 추진 동력이 될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개편하는 ‘글로벌혁신특구’의 최적의 분야이며 강원 미래 전략의 핵심이다. 김진태 지사가 올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인 바이오헬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 요청할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주력 산업 개편안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데이터 분석, 천연물 바이오소재 등 바이오헬스 산업과 세라믹 신소재, 차세대 고성능 센서 등을 강원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강원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라는 방증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강원 바이오산업이 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9일 (화)

사설/칼럼 19면

계속되는 북한 도발, 한미동맹 더욱 강화해야

북한이 18일 오전 8시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38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약 10시간 만에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쏜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UFS)’를 실시,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 훈련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분

석된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만을 상정한 훈련을 해 왔고, 핵 사용을 전제로 한 훈련은 없었다. 양국은 북

한의 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을 담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 위기 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현대용 핵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 양국이 핵 사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여러 형태의 한미 군사훈련은 역대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축소 또는 파행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은 대북 협상용 카드로 남용돼선 절대로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도 확고한 준비태세 속에서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군사훈련 수행능력을 강화해 굳건한 대북 방어태세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기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이른바 포괄안보 또는 융합안보 시대다.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국가안보인 정치·군사안보 위주에서 지금은 경제, 에너지, 식량, 기후, 사이버, 감염병 등이 단일요소

또는 융·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적응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전날 이어 18일 동해상 탄도미사일 또 발사

내년 8월 핵 사용 전제 한미 군사훈련 ‘반발’

확고한 안보태세 중심축 절대 무너져선 안 돼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강한 국방을 중심으로 한 군사안보와 안보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중심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도발과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한 현실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비 팽창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반도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면 우리의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